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5:1~32, 요 15:12~16

은혜찬송 85장 (죄인들을 위하여), 찬양 172장 (주의 이름 높이며)

오늘 배울



1.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찾아 회개시키러 오신 분임을 압니다.
2. 우리가 주님의 명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심을 압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하는 이것
 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
 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 15:12~15)



을 이해하기

좋은 친구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친구의 수준은 곧 나의 수준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내가 사귄 수 있는 친구가 결정됩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습다. 모세 또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 욥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진실한 친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요 11: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3~14)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n to lay down one's life for his friend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ever I command you. (Jn 15:13~14)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원망했습니다(눅 15:1~2). 그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서로 어떻게 달랐나요(막 2:17)?
- ② 예수님과 우리의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비교하여 써 봅시다.

예수님의 신분	사 9:6 빌 2:6	
우리의 신분	욥 25:4~6 롬 3:9~12	

3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목숨까지 버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롬 5:6~8)?

4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떠올려 봅시다. 나는 그 친구를 잘 알고 사랑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렇다면 나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사랑하며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느끼는 예수님에 대해 모두 적어 봅시다.

5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과 각오를 써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잠 17:17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월

사 9:6

화

막 2:17

↑

요 15:13

↓

롬 5:8

↓

빌 2:6

↓

요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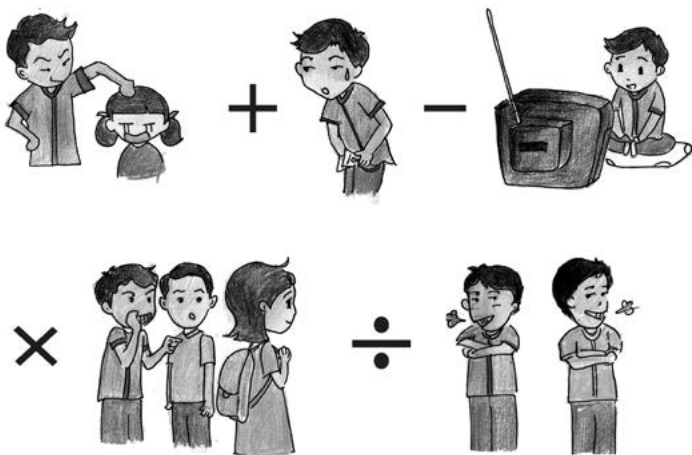
죄의 수학

더하기 - 죄는 그대에게 문제를 더합니다. 죄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얽히고 골치 아파 집니다.

빼기 - 죄는 그대의 모든 힘을 빼앗습니다. 죄가 깊어 갈수록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무력해집니다.

곱하기 - 죄는 그대의 아픔을 곱합니다. 죄된 생활이 마취제가 될 때가 있으나 깬 뒤의 아픔은 이전보다 더합니다.

나누기 - 죄는 이웃을 나눕니다. 가족을 쪼갭니다. 죄는 친구를 잃게 합니다. 결국 죄는 그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을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지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내세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성경에는 천사도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히 1:14). 그리고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즉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몸은 다만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의 실체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 4:12)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몸(Body)은 오감을 가진 육체이고, 혼(Soul)은 사람의 지각과 이성과 감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Spirit)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질적인 '나'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은 이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만 있는 식물의 생혼과, 몸과 혼만 있어서 감정을 느끼는 동물의 각혼과 구별해서 사람에게 있는 영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는 양심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는 양심은 사람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타의 동물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종교가 있어 왔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아무리 얻어도 그 마음에 공허감이 남아있다면 이는 영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만약 영이 없다면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짐승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